

## —대한민국 척주미술대전 서예작품을 위한 참고자료—

### 죽서루의 추억

권은영

죽서루./죽장사와 명기 죽죽선녀의 집/서쪽에 있다 하여 그렇게 이름 지었다 하는데./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

천인(千仞) 절벽 위에 앉은 집/저 백마강 낙화암의 절벽보다/더 승(勝)하지 않은가./벚꽃 피어 만발하면/삼척 사람들 피어 만발하지.

매미들이 노래자랑을 하고 있던 어느 여름날/나는 죽서루 앞 다방에 앉아서/친구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었지/벚나무 녹향(綠香) 한 줌 집어넣고/매미들 노래도 한 줌 넣고/오십천 수향(水香)도 한 줌 넣고/친구들 마음도 한 줌 넣어/휘휘 저어 입에 넣고 돌렸지./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난 친구들/대학 일학년 여름방학 때였지

털복숭아 같은 가시내들이 모여/털복숭아 같은 얘기들을 쏟아놓고 있었지/커피 마시는 요령도 서툴러/부라우스 앞가에 커피 흘리면서 말이야./그 다방 아직 거기 있을까.....?/털복숭아들 중 누가 거기 살고 있을까.....?/가보고 싶다/누구라도 만나고 싶네.

### 죽서루연가

김진광

그 누가 말했던가 관동 제일 죽서루/굽이굽이 사연 담은 오십천의 솜씨런가/수많은 시인묵객들 시 한 수 읊던 곳/그대와 나 푸르른 시절 한없이 사랑이 불타던 곳/오늘은 그대 생각에 단풍잎 고운 추억을 줍네/조용하게 때로는 격렬한 강물에 그대 소식 물으며/하얗게 그리움이 밀려오는 사랑의 바다로 가네.

누구나 감탄하리 아름다운 죽서루/굽이굽이 사랑 담고 오십천은 흐른다./수많은 발길들이 풍류를 즐기던 곳/그대와 나 서로의 꽃이 되어 활짝 피던 곳/오늘은 그대 생각에 떨어져 쌓이는 추억을 줍네./느리게 때로는 거침없는 강물에 갈 길을 물으며/한없이 추억이 밀려오는 동해안 바다로 가네.

### 죽서루에 오르면

정연휘

낭랑히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죽서루에 오르면/아주 먼 옛날, 민족자존의 소리/샘물소리 솔바람소리에 섞이어/고려 때의 소리가 들린다.//구름에 허리 가린/두타산 천은사로부터/오십천 강 줄기 따라 물어 오는/낭랑한 글 읽는 소리//빠속까지 깨끗한 선비/이승휴 선생이/“제왕운기”글 읽는 소리./아주 먼 옛날, 자존의 소리/죽서루에 오르면/고려 때의 소리가 들린다.

## 죽서루에 올라

김소정

천 살 쯤 되면 굽이굽이 내가 모여/아무 말 없이 한 몸으로 흘러가는/오십천 조금 닳을 수  
있으려나./땅 끝까지 낮추나 억지 굽힘이 아닌 물/불래포 바다에 닿아 비로소 거듭난다.  
두타산에서 온 바람, 강물과 만나면/소슬바람 되어 한여름을 잊게 하고/죽서루 마루 위에 앉  
아서 들어보는/매미 노래엔 시름, 기다림이 배어있다.  
동안,미수,겸재,송강 선생의 솔처럼/청정한 눈길 고스란히 받던 죽서루/신이 된다는 건 가슴  
앓이 한참 뒤에야/실핏줄마저 울리는 피리소리 같은 거라고.  
천 고개 넘어서도 무수히 피고 지는/왜나무 꽃만큼의 사람들 마주하면서/눈으로 귀로 거슬리  
는 일이 잦아진다면/삶의 그리메 꼼꼼하게 되짚어야 하리라.

## 죽서루에 올라

김은숙

오십천 휘돌아/필 비단 풀어내어/노을 빛 하늘가에/물 그림자 어울리면/강 건너 가람마을에  
바람꽃이 핀다나//돌부리 하나 하나/천년 누각 이뤘으니/두견화 피고 지고/한 세월 보듬고서  
/무늬목 단청 빛마다 님의 숨결 살았는데//시객은 어디가고/글귀만 즐비하여/자연의 법도대  
로/세상을 끌어안고/무위로 살아가는 법 여기 와서 배운다.

## 님의 향기

최동호

달빛도 쉬어가는 죽서루에는/따스한 님의 숨결 손에 잡힐 듯/눈길마다 어리는 그 발자취가/  
우러러 가슴속에 저러옵니다./아! 죽서루/동안님의 옛 그림자 밝으며/두고 가신 님의 향기/헤  
아려 봅니다./벼슬도 다 버리고 구동에 와서/남기신 제왕운기 천은사에는/눈길마다 어리는  
그 발자취를 /우러러 가슴속에 새겨봅니다./아! 죽서루/동안님의 옛 그림자 밝으며/두고 가신  
님의 향기/헤아려 봅니다.

## 죽서루 편지

宇玄 김민정

연두빛 발을 담근 오십천은 더 푸르고/바위도 앉은 채로 놓여 있는 누각에는/한 천년 받쳐  
든 시간 망울망을 부른다.  
양지귀 물들이는 산수유 눈을 뜨고/첫 마음 못다 한 말 흥매화 열은 기침/파릇한 햇살 속에  
서 숨바꼭질 한창이다.  
돌을 짊어 구멍 내며 소원을 빌었다던/옛사람 그 손길이 뜰에 아직 남았는데/절반은 눈물꽃  
맺혀 그렇그렇 피어 있다.  
하늘 향해 뜻을 단 관동별곡 가사 터엔/송강의 푸른 노래 봄빛 속에 새순 돋고/오십천 아침  
을 연다 햇살무늬 반짝인다.

## 죽서루

울곡 이이

누가 하늘을 도와 이 아름다운 누각을 세웠는가./그 지나온 세월 얼마인지 알 수 없구나/들  
밖에 둘러선 산들은 봉우리가 떠있는 듯 하고/ 강변의 모래가엔 맑은 물 흐른다./시인과 묵객  
들 한이 많다 한들 /이 승지에서는 어찌 시름에 젖을 수 있겠는가. /온갖 인연 모두 떨쳐 버  
리고 낚싯대 들고서 /푸른 강변 서반에서 즐고 있는 갈매기와 논다.

죽서루

김광준

파란 강물에 내 두 발을 씻고/자라머리처럼 불쑥 솟은 봉우리 걸어 올라 푸른 죽서루 올랐다./ 술은 반쯤만 기울여도 천날토록 취하고/ 여인네 한번 웃음에 이태를 머물렀다./구름 저쪽 아득히 외로운 따오기 날아가고/파도머리 잔잔해 흰 갈매기 날고 있다./여기 죽서루 속세의 더러움 모조리 떨어 깨끗한 곳이요/학을 타고 양주고을 오르기를 막는 것 없구나.

죽서루

文奉 鄭惟一(문봉 정유일)

삼척에 와서 옛날 들었던 누각 지금 오르니/단풍잎 갈대꽃 한 모양으로 가을이다./푸른 대나무 가지 얽혀 낮은 난간에 굽어 돌리고/청산은 그림자 띄워 물결에 잠겨 흐른다./영원히 아름다운 경치 이름난 분들 읊었었고/멀리서 이어온 고난은 지친 나그네의 시름이다./아직도 갈매기 잡으려는 기심을 버리지 못했음이 두렵나니/종일 난간에 기대어 모래톱의 갈매기 보고 있다.

죽서루

蓬萊 楊士彥(봉래 양사언)

승일날 산책삼아 죽서루 오르니/흰구름 단풍든 나무 한가을 되었다./천길 굳은 절벽 두짝 바람으로 갈라지고/한 줄기 흰 강물 아홉구비 돌아 흐른다./신선 사는 경지여서 속세를 떠난 듯한 흥취 일고/세상에는 한가로운 시름 붙일 데가 없다./바야흐로 술을 인연해 항학을 불러서 신선되려고 하니/신선 배에 가까이 갈 수 없어 흰 갈매기 친할 수 없다.

죽서루

巴陵 許準(파릉 허 준)

옛 실직나라 흥하든 말든 강물 홀로 흐르고/그 성 남쪽에는 일찍부터 죽서루 서 있다./누각 올라 둘러보니 내 사는 고장이 아니어서 한탄이 되지만/엷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이 기쁨으로 바뀌어 잠시 머무를 만하다./만고에 이어갈 강산은 그림같이 빙둘러 있고/ 이 한 곳 으스스달 경치 조는 갈매기에 붙여있다. /맑은 흥취 잔뜩 가지고 어찌 오지 아니할까./기묘한 경치 뛰어난 관동이 온 세상에 떨친다.

죽서루

滄洲 車雲락(창주 차운락)

두타산 높은 나무 푸르게 이어 내려/서쪽을 굽어 돌아 내리니 오십천 이로우나/굳은 성벽은 하늘의 새와 같이 아래로 굽어보고/아름다운 누각은 거울속 하늘같이 산뜻하게 높이 솟았다./강과 산은 관청 경계까지 이르렀고/바람과 달은 공무보는 책상 앞에 오래 머문다./이제 삼척 고을 어진 선비 많음을 알겠으니/삼할은 벼슬아치 구실이나 칠할은 신선이라.

죽서루

玄機 李景巖(현기 이경암)

푸른 바다 동쪽 머리의 첫째가는 죽서루/ 누각에 올라 좋은 경치 내려다 보니 가을 석달 지났구나./산모양 산뜻하고 맑아 천길 절벽 이루고/ 물의 형세 질펀하게 오십천은 흐른다./한가한 날 향긋한 술로 나그네의 한 없이하고/ 아름다운 여인의 금빛 실오라기 이별의 슬픔을 묶어버린다./덧없는 인생 여기 이르니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확트이나니/하늘 끝 가는 데 드는 행장 백구에게 물어야 하리.

죽서루

御史 洪敬纘(어사 홍경찬)

오십천 긴 냇물 한 누각을 둘러 있고/ 죽서루의 바람과 햇빛 가을처럼 상쾌하다./바위벼랑 막  
힌 돌 비탈길 황학이나 넘겠고/ 채색된 기둥 조각된 난간은 푸른 강물 굽어본다./시와 술은  
마음 느슨하게 해 구름밖의 흥취를 돋우고/ 주악과 노랫소리 나그네 시름을 위로해 준다./낙  
시대 드리움은 고기잡기를 탐해서가 아니요/ 물가 모랫벌의 갈매기와 짝하려는 것일세.

죽서루

三湖 李重協(삼호 이중협)

오십천 냇물 감돌아 흐르나 성은 우뚝하고/ 죽서루 그림자 맑은 냇물에 잠겨있다./어지러이  
핀 꽃 붉은 나간에 여기저기 떨어지고/ 꽃다운 풀 더부룩하게 물가에 푸르다./ 고운 거문고  
통기는 여인들 맵시 뛰어나/ 시인 목객들 오래 머물렀으리라./ 늙은 나 자신 솔바람 소리 듣  
기 좋아하지만/ 멀리 한양 대궐의 임금님 그리워하네.

죽서루

坦齋 李重夏(탄재 이중하)

오십천 긴 냇물에 백척 높은 누각이/ 실직나라 옛 서울을 천년토록 지켜왔네./바위는 난간 밑  
에 깔리어 서로 맞잡 듯 드높고/ 물은 난간 앞을 거꾸로 흘러와 출렁거릴뿐 흘러가지 않는  
구나./유원함이 마음에 들어 사절을 멈추게 하고/ 맑고 찬 기운을 허파 깊이 들이쉬어 세속의  
더런 시름 깨끗이 씻어낸다./저녁을 알리는 뿔피리 소리 돌아갈 길 재촉하니/ 앞날의 만날 기  
약 당겨 잡고자 백구에게 묻노라.

죽서루

府使 李勉心(부사 이면심)

영동 바닷머리의 첫째가는 누각/ 흰구름 하늘에 떠 있어 맑은 가을 같구나./바위겹친 벼랑에  
높이 솟은 기둥 단사에 데운 듯 붉고/ 물 모여 난간 앞에 출렁이며 파랑게 흐른다./기슭에 있  
는 인가 모두 별천지 같고/ 숲에서 지저귀는 새소리 시름을 없애 주는구나./신선 세계 같은  
누각에서 지팡이 짚고 나오니/ 자수는 대수롭지 않게 백구 곁에 있구나.

죽서루

泉谷 安 省(천곡 안 성)

푸른 벼랑에 우뚝 솟은 높은 누각/ 꽃 피고 지는 세월 그 얼마나 오래던가/ 많은 사람 바람  
과 구름처럼 스러지고/ 오십천 강물은 세월과 함께 흘러간다./화각 한 울림에 새벽과 밤이 이  
어지듯 세월 한스럽고 빨리 감이/ 물안개 끼어 희미한 저 먼 물길 예나 이제나 시름겹게 한  
다./임금님 막중한 은혜 갚을 길 없어/세속에 찌든 벼슬 버리고 갈매기들과 벗하고 싶은 마음  
버릴 수 밖에 없구나.

오십천

갈산 김영준

온갖 풍상 다 겪은/외줄기의 삶/굽이 굽이 얼룩진 상처 감추며/자연의 젖줄로 남고 싶다.//  
녕마를 벗고 알몸이 되어/아득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사슴의 무리가 날뛰는/들판에 이르러  
노래도 부르고/술한 사연에 휘말려/울고 싶다.//엎어졌다 자빠지고/취한 듯 뒹굴다/조용히  
돌아온/청상의 눈물이고/청아한/사랑의 흐름이고 싶다.

### 오십천

권은영

고향을 그리면/떠오르는 오십천//굴곡의 세월에도/변화의 역사에도/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지난6.25때/봉황산앞 사대광장의/처절했던 일들/이 마을 저 마을의 긴긴 사연도/모두 가슴에 묻고 흐른다./오십천에는/많은 사연이 녹아 있다./모퉁이는 감아돌고/바위들은 다독이고/깊거나 얇거나/속깊이 헤아리는 마음이/이 마을 사람들을 다독여/내일을 열어 가게한다.

### 오십천

郡守 李龜榮 (군수 이귀영)

有五十長川(유오십장천) 오십천 긴 냇물에서  
臨流觀魚壁(임류관어벽) 절벽 아래 물고기를 본다.  
立奇岩前溪(입기암전계) 앞 냇물에는 기이한 바위 서 있고  
木橋葛岩長(목교갈암장) 침 덩굴 얽힌 바위에 나무다리는 길다.  
林南山新楓(임남산신평) 남산 수풀에는 단풍들고  
鳳臺晴嵐近(봉대청람근) 봉황대에는 아지랑이 가깝다.  
山歸雲入詠(산귀운입영) 산에서 돌아오며 구름속에 시 읊으며

### 오십천

藥峯 徐淸 (약봉 서성)

川自牛山來(천자우산래) 우보산에서 흘러내린 냇물  
沙明苔蘚綠(사명태선록) 모래는 깨끗하고 이끼는 푸르구나.  
榮紆何盤盤(영유하반반) 굽이쳐 흐름이 몇 구비인가.  
四十七回曲(사십칠회곡) 마흔 일곱구비 돌아 흐르네.  
深厲淺則揭(심려천즉계) 깊은 곳은 옷을 허리까지 걷고 얇은 곳은 무릎까지 걷고서 건너니  
石齒嚙我足(석치교아족) 돌부리 내 발을 찌르고  
柴見浣紗女(시견완사녀) 때 맞추어 보이는 빨래하는 여인은  
白皙顏如玉(백석안여옥) 얼굴이 옥과 같이 희구나.

### 오십천 강변

이봉자

오월 강변은 곳곳이 꽃길이다./죽서루 큰 바위들은 알까/굽이굽이 먼 길 흘러온/오십천의 나이를/푸른 숲 그늘 강물에 일렁이고/천만송이 장미꽃 형형색색 나와 있다./관광객들 벌 나비처럼 날아와 /도떼기시장만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덩달아 날아든 갈매기떼는/배고픈 깡이 우는 소리를 내며/오락가락 물 위를 순찰하고 있다.

### 오십천

정연휘

산협을 굽이 굽이 흘러/가람 강변에서, 오십천은/무시로 죽서루를 만나/청량한 물결소리로/정담을 나누고 있다./천년을 두 곱한/세월이 잠겨 있었다./이 굽이에 시가 흐르고/저 굽이에 역사가 흐르는/오십천 청정한 물에는/푸른 산이 잠겨 있었다./푸른 산에는 고기떼가/실직(悉直)의 역사와 노닐고,/깍아지른 벼랑 위 선계/시인 송강 선생은/관동제일 죽서루에 앉아/은하수 서녘으로 흐르는 소리를/꿈 속에 듣고 있었다./물에 잠긴 푸른 산에/노니는 고기떼 서너마리/관동별곡을 읽고 있었다.

## 다시 삼척에서 살리

이성교

오래간만에/봉황산이 웃고 있다.// 그 옛날/산 밑으로 흐르던 강물/풍요함을 노래해주고 있다./다정한 산봉우리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고 있다.// 마음 허전할 때/새로 날개를 달고/월혈 정라진으로 가서/얼큰한 곰치국 한 그릇 먹고/속을 풀면 어찌리// 다시 바닷가에 나가서/배를 쏙 내밀고/수평선 바라보며/새천년 꿈을 꾸면 어찌리.

## 봉황산 벚꽃 길

장금희

봄안개 자욱한/봉황산 오르는 길// 지천이 벚꽃이다.// 구경나온 사람들은 /마음의 꽃가지 하나/피우고// 정라진 /삼척바다 눈맞춤하며/천국으로/나비되어 날아간다.// 앞서 오르는 아낙네여/봉황정에서/잠시 쉬어 가자// 꽃은 지면서도/저리 아름다운가.

## 수로부인(水路夫人)

이성교

수로부인 임원에 오다/신라의 그림자로 오다// 동해 파도가 하얗게 일었기/그리 이야기가 많은가// 한 때는 용에게 붙들려/바다 속으로 들어갔다/백성들 애원의 노래로/풀려난 일도 있었지// 또 한 때는 순정공(純貞公)따라 /강릉으로 갈 때/절벽 위에 핀 진달래꽃/구름 속으로 나온 영감한테서/선물로 받은 일도 있었지// 신라의 큰 꽃 수로부인/워낙 아름다웠기/바다가 파란 마음으로/그 얼굴을 지켜주고 있었다.

## 헌화가

신달자

사랑하느냐고/한마디 던져놓고/천길 벼랑을 기어 오른다./오르면 오를수록/높아지는 /아스라한 절벽 그 끝에/너의 응답이 숨어 핀다는/꽃, 그 황홀을 찾아/목숨을 주어야/손에 닿는다는 /그 도도한 성역/나 오로지 번득이는/소멸의 집중으로/다가가려 하네/육신을 풀어 풀어/한을 회오리로 솟아올라/하늘도 아찔하여 눈감아 버리는/깜깜한 순간/나 시퍼렇게 살아나는/눈맞춤으로/그 꽃을 꺾는다.

## 사또 허목

신원철

삼척 정라진 육향산의 늪은 비석/ 바닷가 곰치국집,평남횃집,일출횃집 뿐 아니라/ 집집마다/탁본되어 걸려 있다./ 삼백년 넘도록 민심을 휘어잡고 있는/ 전서체 비문/(중략)/오늘도 삼척 앞바다 시퍼렇게 일렁이고/ 눈이 왔다하면 지붕 내려앉도록 쌓이고/ 비도 왔다하면/ 폭포처럼 들이 붓고/ 싸웠다면 머리 터지도록 치고 받지만/ 허사또 염력은 살아 있다.(하략)

## 가곡천의 여울물 소리

이용대

덕풍 물과 동할 물이 어깨동무하고 내려와/ 넉넉한 청평들을 사시사철 감아 돌아/ 인정(仁情)은 산 능선 타고 솔바람으로 부는 밤/ 구이산 머리위로 선달 달무리 야위면/ 너머 탕실(湯室)의 먼 등불/ 눈썹 위에 외롭다./(중략)/삭풍 우는 치바위에 부엉이 슬피 울어/ 오목(梧木)길 깊은 하늘에/ 별이 되어 속삭인다./ 팔십 리 길 굽이굽이 가곡천을 오가면서/ 남겨놓은 잊지 못할 사연들./(하략)

### 삼척 해변길

이용대

새천년 도로엔 항상/해향이 어린다.// 목은 천년은 파도가 씻어갔고/조각공원으로 달려오는  
설렘은 늘/푸른 머리칼이다.// 초승달처럼 굽은 해안 따라/대양과 마주 하는 솔 무리 상큼한  
데/일부러 앉아 쓰다듬다 일어서는/오랜 벗 갯바위다.// 길 풀 같은 외로움도/미련으로 오는  
질긴 슬픔도/깨어져 덜 아문 사랑도/지그시 발밑으로 묻으며 걸어보는 길// 새천년 도로 끝  
날쯤엔 /어깨가/바닷새처럼 가벼워 질까.

### 해국(海菊)

최광집

삼척 이사부공원/해안 데크 길 옆/바위틈 흙 한줌 붙잡고/아스라이 하얀 꽃 피운 해국//까칠  
한 해풍 맞으며/동해바다 푸른 물빛/수평선 바라보며/바다의 뱃전에 걸려 넘어진/어부들의  
영혼을 달란다.//여름날 절인 피약별에/까맣게 가슴 태운 해국/시린 겨울바람 사이로/펄펄  
내리는 이불을 덮고/갈매기 벗 삼아/오늘도/가신 님 그리워하며/봄날을 기다립니다.

### 민족의 나침반 이승휴

김진광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을 단군조선으로 했지/ 그리고 부여 비류 옥저 예맥 발해를/ 우리역사  
에 넣으라는 천둥소리가 들렸지/ 중국 중심 역사의식 껍질을 깨고나와/ 민족 자주정신 눈 뜨  
게 한 정말 큰 일을 했지/ 민족이 어려울 때 민족의 주체성을 찾는 건/ 나라님은 물론 관리  
와 백성들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하략)

### 제왕운기(帝王韻紀)중 에서

이승휴

요동에 별천지 있사오니/중조와 엄연히 구분되며/큰 파도 출렁출렁 삼면을 둘러싸고/북녘에  
대륙있어 가늘게 이은 땅./가운데서 국경천리 여기가 조선이다.....  
처음에 어느 누가 나라를 열었던고./석제의 손자 이름은 단군일세./요제와 같은 이 무진년에  
나라세워 /우순을 지나 하국까지 왕위에 계셨도다.

### 관동별곡

송강 정철

진주관 죽서루 오십천 내린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 가니/차라리 한강으로 향해  
남산에 이르고저/ 관원의 발길은 한도가 있는데/경치도 보고 봐도 싫증나지 아니하니/ 회포  
도 많고 많아 나그네 시름 둘 데 없다.

### 소공대(召公臺)

지정(止亭) 남곤

명주 남쪽 실직(悉直) 옛땅/길가에 서 있는 대 쌓은지 오래구나./들었네! 옛날 익성공은 덕이  
소공과 같아 /주린자 배불리 먹이고 추운자 따뜻하게 하여 은혜를 동쪽에 베풀었으니/고개위  
에 대를 쌓고 공이 쉬었던 곳이라 하였네./그리움의 눈물이 대 밑을 적시지만/세월은 흘러 공  
은 가고 대만 남았네.

김공臺(소공대)

晦谷 曹漢英(회곡 조한영)

蔓草荒臺已百年(만초황대이백년) 허물어진 소공대에 넝쿨풀 얽힌지 이미 백년  
殘碑墮淚亂山顛(잔비타루난산전) 남은 비석 보며 흘리는 눈물 산정에 흠어들네.  
東民饑饉還今日(동민기근환금일) 동쪽 백성들 지금 흉년이 들어 굶주리니  
駐車摩挲憶古賢(주거마사억고현) 가마 멈추고 비석어루만지며 어질었던 황희정승그리워하네.

술비노래(술비노래중에서 일부)

민요

정월이라 대보름날에 달도 밝고 명랑한데 말곡 부내가 계절을 당겨서 승부 결단을 하여나 보세. 말곡이 이기면 농사가 풍년이요 부내가 이기면 해사 풍어рода. 삼재팔난을 소멸하고 모든 질병을 방지나 하세. 국태민안을 기원하고 부귀영화를 점지나하소.

덕봉산 아리랑

이창식

(전략)

백두대간 힘차게 달려온 산들이/해안선과 골짜기에 마을을 만들어/이 곳에 사는 착하디 착한 근덕 사람들/메나리 부르며 우주의 살대를 세우고 있노라./아름다운 축복의 땅 가꾸고 지켜/세계의 눈길을 모은 황영조의 달리는 힘처럼/서로 어깨해 주는 든든한 면민으로 살아 가리라.

미래의 꿈을 안고 힘차게 나아가는 근덕/하나처럼 활력이 넘치는 /맹방,금계,교가,교곡,덕산, 부남,광태/동막,궁촌,매원,초곡,용화,장호사람들 마카 대단하여라./웃음으로 나락을 키우고 /정성으로 자식을 키워/세계 어디든 떳떳하게 내보낸 근덕 어진 사람들/너무나 눈부신 고향의 얼굴이어라.

독도 — 삼척부사 윤숙(尹肅)의 말씀

정연휘

아! 물안개 잠옷을 시나브로 내리는 아름다운 그대. 꿈인가 생시인가, 망망의 바다 천고의 풍랑 속에 깊이 발을 딛고, 정갈히 먹감다 내게 처음으로 신비한 전라(全裸)를 드러낸 환상 같은 우청도(羽淸島). 그대 정갈한 영육에서 향기나는 소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침 없는 팽이갈매기떼, 조선 땅! 조선 땅! 기도소리 지천을 울린다.

아득한 신라시대 삼척 포진성에서 배에 목사자를 싣고 우산국을 정벌한 이사부(異斯夫)와 그대는 먼 발치로 눈도장을 찍을 수 있었는데, 인연이 닿지 않았느니라. 나 삼척부사 윤숙(尹肅)이 처음으로 그대를 내 눈에 넣고, 물안개 잠옷을 내리고 전라의 그대를 탐험, 보듬었느니라. 우릉(羽陵)에서 동남쪽 이백리 망망의 바다에서 꿈이 아닌, 환상이 아닌 먹감는 정갈한 그대를 발견. 그대 이름을 지어 정조(正祖)께 주청(奏請)하고 [陟州先生案(척주선생안)] 칠십오쪽 넷째 줄에 우청도는 삼척땅이라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득한 신라의 역사를 조선조의 역사를 안고, 태고로부터 영원토록 질푸른 난바다 탐라(耽羅)와 우산(于山)과 그대는 한반도의 형제자매이니라. 바다 밖 이웃나라 후안무치 쪽발이 그대를 넘보면 능지처참 삼족을 멸하리라.



죽서루(竹西樓)

松江 鄭 澈(송강 정 철)

關東仙界陟州樓(관동선계척주루) 관동에 척주루란 선계에 올라  
 虛檻憑危夏亦秋(허함빙위하역추) 난간에 기대서니 여름 또한 가을 갖구나  
 天上玉京隣北左(천상옥경인북좌) 천상에 천제의 궁전은 북극을 이웃하고  
 夢中銀漢聽西流(몽중은황청서류) 꿈속에 은하수 서쪽으로 흐름을 들을레라.

疏簾欲捲露華濕(소림욕권로화습) 발을 걷고자 하나 이슬꽃에 젖고  
 一鳥不飛江色愁(일조불비강색수) 새가 날지 않으니 강물빛이 시름일레라.  
 欄下孤舟將人海(난하고주장인해) 난간 아래 조각배 한 척이 바다로 들려하니  
 釣竿應拂鬱陵鷗(조간응불울릉구) 드리운 낚시대를 울릉도 갈매기가 툭툭 치더라.

죽서루(竹西樓)

圓齋 鄭 樞 (원재 정 추)

竹西簷影漾清流(죽서첨영양청류) 죽서루 처마 그림자 맑은 물에 일렁거리고  
 潭上山光滿小樓(담산산광만소루) 못가의 산 경치 작은 누각에 가득찬다.  
 佳節遠遊多感慨(가절원유다감개) 좋은 계절 멀리 소풍함이 감개 많으니  
 斜陽欲去更遲留(사양욕거갱지류) 해질 때 떠나려다 다시금 머무른다.  
 曾聞有客推黃鶴(증문유객추황학) 일찍이 황학이 옮겨갔음을 읊은 분 있었는데  
 今恨無人押白鷗(금한무인압백구) 지금은 갈매기와 노니는 사람 없음이 한스럽구나  
 夾岸紅霞春又老(협안홍하춘우로) 양쪽 언덕의 붉은 노을 봄이 저물어 가는데  
 角聲吹欲裂眞州(각성취욕열진주) 뿔피리소리 삼척 온 고을을 찢는 듯 불어 쪼인다.

죽서루(竹西樓)

文奉 鄭 惟一(문봉 정유일)

眞珠今上昔聞樓(진주금상석문루) 삼척에 와서 옛날 들었던 누각 지금 오르니  
 楓葉蘆花一樣秋(풍엽노화일양추) 단풍잎 갈대꽃 한 모양으로 가을이다.  
 翠竹交枝低檻曲(취죽교지저함곡) 푸른 대나무 가지 얽혀 낮은 난간에 굽어 돌리고  
 青山送影蘸波流(청산송영잠파류) 청산은 그림자 띄워 물결에 잠겨 흐른다.  
 百年雲物名賢咏(백년운물명현영) 영원히 아름다운 경치 이름난 분들 읊었었고  
 千里風霜病客愁(천리풍상병객수) 멀리서 이어온 고난은 지친 나그네의 시름이다.  
 猶恐機心際未盡(유공기심제미진) 아직도 갈매기 잡으려는 기심을 버리지 못했음이 두렵나니  
 倚欄終日看沙鷗(의란종일간사구) 종일 난간에 기대어 모래톱의 갈매기 보고 있다.

죽서루(竹西樓)

肅宗大王御製詩(숙종대왕어제시)

碑兀層崖百尺樓(울울층애백척루) 높은 벼랑위에 백척의 누각  
 朝雲夕月影清流(조운석월영청류) 아침 구름 저녁 달이 맑은 물에 비치네  
 粼粼波裡魚浮沒(린린파리어부몰) 맑고 맑은 물결 속에 물고기 부몰하니  
 無事凭欄押白鷗(무사빙란압백구) 일없이 난간에 기대어 백구를 감독한다.

죽서루(竹西樓)

五十川橫碧玉流(오십천횡벽옥류)  
奇岩百尺戴飛樓(기암백척대비루)  
東暝一對彫欄出(동명일대조난출)  
南浦雲依畫棟留(남포운의화동류)  
絳節當年隨去鶴(강절당년수거학)  
滄波終古屬眠鷗(창파종고속면구)  
登臨忽覺精神爽(등림홀각정신상)  
恍馭冷風騁九州(황어냉풍빙구주)

翫齋 權 擘(습재 권 벽)

오십천 옥같이 맑게 비껴 흐르고  
기이한 백척바위 날렵한 누각 이고 있다.  
동해에 해돋으니 조각한 난간 드러나고  
남쪽 갯가 구름은 채색한 서까래에 서려 있다.  
부신과 깃발 받던 그해에는 학을 따라 갔었고  
푸른 물결 언제까지나 조는 갈매기 따르게 한다.  
누각에 오르니 문득 상쾌해지고  
경치의 황홀함은 싸늘한 바람을 몰아 온 세상에 달려간다.

죽서루(竹西樓)

悉直興亡水獨流(실직흥망수독류)  
城南尚有竹西樓(성남상유죽서루)  
登臨錯恨非吾土(등림착한비오토)  
嘯傲翻忻可小留(소오번흔가소류)  
萬古江山拱醉墨(만고강산공취묵)  
一區烟月屬眠鷗(일구연월속면구)  
竭來清興知多取(걸래청흥지다취)  
奇勝關東擅九州(기승관동천구주)

巴陵 許 準(파릉 허 준)

옛 실직나라 흥하든 말든 강물 홀로 흐르고  
그 성 남쪽에는 일찍부터 죽서루 서 있다.  
누각올라 둘러보니 내 사는 고장이 아니어서 한탄이 되지만  
엷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이 기쁨으로 바뀌어 잠시 머무를 만하다.  
만고에 이어갈 강산은 그림같이 빙둘러 있고  
이 한 곳 으스스달 경치 조는 갈매기에 붙여있다.  
맑은 흥취 잔뜩 가지고 어찌 오지 아닐까.  
기묘한 경치 뛰어난 관동이 온 세상에 떨친다.

죽서루(竹西樓)

彫石鑄崖寄一樓(조석전애기일루)  
樓邊滄海海邊鷗(누변창해해변구)  
竹西太守誰家子(죽서태수수가자)  
滿載紅粧卜夜遊(만재홍장복야유)

正祖御製詩(정조어제시)

돌 다듬고 벼랑 쏘아 누각 하나 세우니  
누각 가에는 푸른 바다요 바닷가에는 갈매기 노는구나.  
죽서루 고을원은 뉘 집 자제던가  
미녀들 가득 신고 밤새워 뱃놀이 하리.

죽서루(竹西樓)

竹西珠翠映江天(죽서주취영강천)  
上界仙音下界傳(상계선음하계전)  
江上數峯人不見(강상수봉인불견)  
海雲飛盡月娟娟(해운비진월연연)

松江 鄭澈(송강 정철)

죽서루 아름다운 모습 하늘에 비추이고 강물에 어린다.  
하늘의 선녀 소리 들리어 오건마는  
사람은 아니 뵈고 산봉우리만 물위에 있네  
구름은 다 지나가도 달빛만은 곱게 곱게 비춘다.

죽서루(竹西樓) 竹西樓

危欄壓水更臨風(위란압수갱림풍)  
官府渾疑上界同(관부혼의상계동)  
孤夢欲成驚一覺(고몽욕성경일각)  
竹西樓外雨連空(죽서루외우연공)

壺隱 金 尙(호은 김상)

물위의 난간에 다시 바람이 이니  
관부는 홀연히 상계인가 싶구나.  
홀로 꿈 이루려다 깜짝 놀라 깨어보니  
죽서루 밖에는 비가 주룩 주룩 내리네.

죽서루(竹西樓)

石北 申光洙(석북 신광수)

西樓明月望簾寒(서루명월망렴한) 죽서루 밝은 달 발을 통해 차갑고  
 五十灘聲動畫欄(오십탄성동화란) 오십천 여울 물소리 채색난간 들썩인다.  
 今夜始爲東海客(금야시위동해객) 오늘 밤 처음 동해에 온 나그네되어  
 四仙遊處白頭看(사선유처백두간) 신라때 사선이 유람하던 곳 백발되어 보누나.

죽서루(竹西樓)

晦谷 曹漢英(회곡 조한영)

沙白江青漾夕暉(사백강청양석희) 흰 모래 푸른강에 낙조가 출렁이는데  
 竹西樓上獨移時(죽서루상독이시) 죽서루 위에 홀로 가끔 올랐치면  
 秋光如畫簾旌晚(추광여화염정만) 가을 빛은 그림같이 염정에 비치는데  
 臥看紗籠駱老詩(와간사롱낙노시) 누워서 사롱의 백거역시를 본다.

죽서루(竹西樓)

退漁堂 金鎮商(퇴어당 김진상)

天回雲漢掛西樓(천회운한괘서루) 하늘이 은하수를 돌려 죽서루에 걸어 두었고  
 檻外長川萬古流(함외장천만고류) 난간밖 긴 냇물 끊임없이 흐른다.  
 莫道海濱王化逖(막도해빈왕화적) 이 바닷가 지역 왕화에서 멀다 말하지 말라.  
 恩波千里及魚鷗(은파천리급어구) 임금님 은혜 천리에 미쳐 고기와 갈매기까지도 왕은을 입었나니.

죽서루(竹西樓)

府使 鄭性愚(부사 정성우)

削壁危欄影倒川(삭벽위란영도천) 절벽 깎아 만든 높은 난간 냇물에 그림자 거꾸로 비추니  
 名樓此日客停鞭(명루차일객정편) 이름난 누각은 오늘 나그네 말채찍 머물게 한다.  
 眞緣更問春消息(진연문춘소식) 정말 봄소식 인연 있는지 다시 물으려니  
 曲曲桃花倘引船(곡곡도화당인선) 굽이 굽이 복숭아꽃이 아마도 배를 불러들이는가 봐.

죽서루(竹西樓)

秋齋 趙秀三(추재 조수삼)

三陟西樓大海經(삼척서루대해경) 삼척 죽서루 대해를 임해 있고  
 石屏風竹共亭亭(석병풍죽공정정) 둘러싼 바위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모두 높이 솟아 있다.  
 秋娘喝罷關東曲(추랑갈파관동곡) 미녀들 관동곡을 크게 불러 마치니  
 十二欄頭遠岫靑(십이난두원수청) 열두 난간 머리 먼 산봉우리 푸르다.

죽서루(竹西樓)

府使 韓聖佑(부사 한성우)

太白錦剛一脈連(태백금강일맥연) 태백과 금강이 일맥으로 이어져  
 爲官兩地又兼仙(위관양지우겸선) 두 곳에 벼슬하고 또 신선을 겸했네  
 去來管領誠非少(거래관령성비소) 가고 오고 다스릴 일 참으로 적지않아  
 萬二千峰五十川(만이천봉오십천) 만이천봉과 오십천이라.

죽서루(竹西樓)

惕若齋 金九容(척약재 김구용)

水韻藏一郡(수운장일군)	물과 구름 온 고을에 잠겨 있으니
塵鞅往來稀(진앙왕래희)	속세의 번거로움 오고감이 드물다.
客館臨丹壑(객관임단학)	객사는 붉은 골짜기 가까이 있고
人家住翠微(인가주취미)	인가는 언덕에 있다.
蘋風吹淅淅(빈풍취석석)	부평초 위로 바람 쓸쓸히 불어가고
竹露洒霏霏(죽로쇄비비)	대나무 잎에 이슬비 부슬부슬 내린다.
一片閑中恨(일편한중한)	한가한 속에 한갈래 한스러운 것은
無繩係落暉(무승계낙휘)	끈이 없어 지는 해를 붙잡아 매지 못하는 것이다.

죽서루(竹西樓)

晦窩 尹陽來(회와 윤양래)

玉樓曾詠竹西樓(옥루증영죽서루)	일찍이 죽서루 아름다운 누각 읊어졌으니
奎藻傳來出月流(규조전래출월류)	아름다운 글들 달 비치듯 뚜렷이 전해온다.
白首遐臣無限恨(백수하신무한한)	백발되어 멀리 떨어져 있는 신하 한스러움 끝 없으나
沙頭惟有會心鷗(사두유유회심구)	백사장에 마음에 드는 갈매기 있을 뿐이다.

죽서루(竹西樓)

惺齋 李寅元(성재 이인원)

關嶺之東第一樓(관령지동제일루)	대관령 동쪽의 첫째가는 죽서루
水廻蒼壁古今流(수회창벽고금류)	물은 푸른 절벽 감돌며 예대로 흐른다.
龍香御墨瞻望地(용향어묵첨망지)	용향이 풍기는 임금님 글씨 쳐다보며
沐浴恩波問白鷗(목욕은파문백구)	임금님 은혜 입었는가 백구에게 물어본다.

죽서루(竹西樓)

齋亭 李達衷(재정 이달충)

樓下澄潭浸碧空(누하징담침벽공)	누각아래 맑은 못에 푸른 하늘 잠겨있고
觀魚不覺夕陽紅(관어불각석양홍)	물고기 보느라 석양 붉음도 느끼지 못했네.
乍先乍後數難定(사선사후수난정)	물고기 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여 세어보기 어려워
爲二爲三言未同(위이위삼언미동)	두 마리다 세 마리다 말마져 헛갈린다.

죽서루(竹西樓)

惕若齋 金九容(척약재 김구용)

水韻藏一郡(수운장일군)	물과 구름 온 고을에 잠겨 있으니
塵鞅往來稀(진앙왕래희)	속세의 번거로움 오고감이 드물다.
客館臨丹壑(객관임단학)	객사는 붉은 골짜기 가까이 있고
人家住翠微(인가주취미)	인가는 언덕에 있다.
蘋風吹淅淅(빈풍취석석)	부평초 위로 바람 쓸쓸히 불어가고
竹露洒霏霏(죽로쇄비비)	대나무 잎에 이슬비 부슬부슬 내린다.
一片閑中恨(일편한중한)	한가한 속에 한갈래 한스러운 것은
無繩係落暉(무승계낙휘)	끈이 없어 지는 해를 붙잡아 매지 못하는 것이다.

죽서루(竹西樓)

江觸春樓走(강촉춘루주)  
天和雪嶺圍(천화설령위)  
雲從詩筆湧(운종시필용)  
鳥拂酒筵飛(조불주연비)  
浮海知今時(부해지금시)  
趨名悟昨非(추명오작비)  
松風當夕起(송풍당석기)  
蕭颯動荷衣(소삽동하의)

新菴 李俊民(신암 이준민)

강물은 봄 누각에 바짝 닿아 흐르고  
하늘은 화평하게 눈썹인 봉우리 두르고 있다.  
구름은 시짓는 붓따라 피어 오르고  
새는 술자리를 스치며 날고 있다.  
바다에서 뱃놀이하니 이것이 율음을 알겠고  
명성만을 찾던 지난날이 잘못임을 깨닫는다.  
솔바람 저녁되어 불어오니  
쓸쓸히 옷깃을 젖힌다.

죽서루(竹西樓)

清霜遍野外(청상편야외)  
聰馬自天西(총마자천서)  
竹葉濃前岸(죽엽농전안)  
楓林映上溪(풍림영상계)  
清窓臨海濶(청창임해활)  
飛閣出雲迷(비각출운미)  
五十川頭興(오십천두흥)  
千般供一題(천반공일제)

七峯 咸軒(칠봉 함헌)

맑은 서리 온 들판에 두루 덮였는데  
총이말 타고 서쪽에서 왔었다.  
대나무잎 앞 언덕에 짙게 무성하고  
단풍나무숲 시냇물에 비친다.  
맑은 바람 드는 창문 바다에 임해 있어 확 트이고  
높은 누각 구름밖에 솟아 그 모습 흐릿하다.  
오십천 강가에서 노는 흥취는  
가지가지 글지을거리 하나씩 만들어 준다.

죽서팔경一臥水木橋(외나무 다리))

十里人家挾一灘(십리인가협일탄) 십리 떨어진 인가가 한 여울 끼고 있어  
往來橫木渡狂瀾(왕래행목도광란) 오고 가려면 외나무 다리로 사나운 물을 건너야 하네.  
宦途失脚危於此(환도실각위어차) 벼슬길 헛 디디면 이와 같이 위태로우니  
有足何曾脚立看(유족하증각립간) 넉넉하게 일찌감치 뒤로 물러서서 바라봄이 그 어떨겠는고.

稼亭 李穀(가정 이곡)

죽서루(竹西樓)

樓起縣崖上(누기현애상)  
飛甍影別沱(비맹영별타)  
數千簷外竹(수천첨외죽)  
五十檻前波(오십함전파)  
松送清風好(송송청풍호)  
山供暮靄多(산공모애다)  
南阡時雨足(남천시우족)  
聊唱與民歌(료창여민가)

都事 韓景麟(도사 한경린)

누각은 절벽위에 매달리듯 서 있고  
날렵한 누각 용마루 오십천 강물에 그림자 짓는다.  
처마 밖으로는 수 천 그루의 대나무 발이요  
난간 앞으로는 오십천 물결 흐른다.  
소나무들 맑은 바람 잘 불게하고  
산들은 저녁 노을 많이 받들고 있다.  
남쪽 논밭에 때맞추어 오는 비 흡족하니  
그런대로 여민동락의 노래 부르게 되리.

죽서루(竹西樓)

噲正翬如閣(쾌정휘여각)  
周遭練似陀(주조연사타)  
沙分青草岸(사분청초안)  
魚共白鷗波(어공백구파)  
玉節臨風駐(옥절임풍주)  
瓊樓得意多(경루득의다)  
隨車一夜雨(수거일야우)  
留待有秋歌(류대유추가)

府使 鄭惟淸(부사 정유청)

날아갈 듯 서 있는 누각 아주 상쾌하고  
타수(陀水) 물가와 같이 오십천 곱게 가다듬어 둘러었다.  
백사장은 풀 있는 강가와 뚜렷이 나뉘어 있고  
물고기는 갈매기와 함께 파도에서 논다.  
옥절을 받들고 바람처럼 여기와 머물러  
아름다운 누각에서 쾌적함을 한껏 누린다.  
수레에서 겪는 하룻밤 빗속에서  
머물러 기다리노라니 “추포가”가 떠오르네.

죽서루(竹西樓)

疎影梅含凍(소영매함동)  
淸光竹帶圍(淸광죽대위)  
川廻樓迥起(천회루형기)  
欄峻鳥低飛(나준조저비)  
暮雨西山是(모우서산시)  
朝雲巫峽非(조운무협비)  
蕭然空佇立(소연공저립)  
風色細翻衣(풍색세번의)

灘隱 李 震(탄은 이 정)

매화 찬 기운 돌며 성긴 그림자 짓고  
맑은 달빛은 대나무 둘러싸 있다.  
냇물은 저 멀리서 내달아 누각을 감돌고  
난간 높으니 새들 나지막하게 날고 있다.  
저녁 비 서산에 내린다는 말은 옳지만  
아침 구름 무협에 끼인다는 것은 잘못일세.  
쓸쓸하게 우두커니 서 있노라니  
아름다운 풍경 속에 옷 가벼이 펄럭인다.

죽서루(竹西樓)

滯客愁相守(체객수상수)  
寒衣直漬圍(건의직궤위)  
樓光龍抱睡(누광용포수)  
洞翠鶴擎秘(동취학라비)  
一水橫臨斷(일수횡림단)  
諸峰徒倚非(제봉사의비)  
分留物色少(분류물색소)  
攄爲後荷衣(총위후하의)

簡易 崔岵(간역 최 립)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사람 시름 떠나지 않으니  
옷 걸어 붙이고 둘러싸고 있는 가난에서 바로 벗어나야 하리  
누각의 모습 용이 조는 듯하고  
골짜기 푸르고 학은 잡힐 듯 날고 있구나.  
한 줄기 강물 가로질러 흘러가고  
여러 봉우리들 우뚝 서 있다.  
쓸모없는 것은 없는 법이니  
여기 있는 모든 것은 은자의 옷이 되리.

죽서루(竹西樓)

縹緲層樓敞(표묘층루창)  
參差翠章圍(참차취장위)  
魚縱明鏡躍(어종명경약)  
雲傍畫欄飛(운방화란비)  
却喜仙區近(각희선구근)  
方知世界非(방지세계비)  
安期是何者(안기시하자)  
吾疫拂塵衣(오역불진의)

蒼谷 李顯英(창곡 이현영)

비단같은 높은 누각에 오르니  
이리저리 푸른산 둘러 있다.  
물고기 맑은 물따라 뛰고  
구름은 단청난간 곁에서 난다.  
신선이 사는 곳 가까워 기쁘고  
또한 인간세상 아님을 알겠도다.  
편안하게 기약할 자 그 누구냐  
나 또한 티끌 옷 떨쳐 버리겠노라.

죽서루(竹西樓)

天外山爭聳(천외산쟁용)  
岩前水合圍(암전수합단)  
樓疑浮蜃出(누의부신출)  
人似御風飛(인사어풍비)  
宇宙身空老(우주신공로)  
庭園事已非(정위사이비)  
登臨遊子意(등림유자의)  
衰老自沾衣(쇠노자침의)

죽서루(竹西樓)

天下無雙處(천하무쌍처)  
關東第一州(관동제일주)  
煙霞連北海(연하연북해)  
歌吹滿西樓(가취만서루)  
日月楹間出(일월영간출)  
逢壺水土浮(봉호수토부)  
使君無事酒(사군무사주)  
詩興在沙鷗(시흥재사구)

죽서루(竹西樓)

側側竹西路(측측죽서로)  
春深多碧苔(춘심다벽태)  
落花皆在水(낙화개재수)  
缺月獨依臺(결월독의대)  
洞氣晴猶濕(동기청유습)  
灘聲去若迴(탄성거약회)  
頭陀雲夕起(두타운석기)  
時自宿簷來(시자숙첨래)

죽서루(竹西樓)

傳馳遠度嶺(전치요도령)  
公事直登樓(공사직등루)  
蜂起西南勢(봉기서남세)  
川開五十流(천개오십류)  
民居通野鹿(민거통야록)  
吏趣共沙驅(이취공사구)  
柰此州飢甚(내차주기심)  
神仙却是愁(신선각시수)

浩菴 李基祚(호암 이기조)

하늘가엔 산들이 다투어 솟아있고  
바위 앞 물은 함께 모여 있다.  
누각은 뜬 신기루에서 나온 듯하고  
사람은 바람을 몰고 나는 듯하다.  
우주 속의 이 몸 헛되이 늙어만 가고  
조정의 일은 이미 잘 못 되어 가는구나.  
루에 올라온 길손의 뜻은  
쇠하고 늙었음에 절로 옷을 적시누나.

懶隱 李東標(나은 이동표)

천하에 둘도 없는 곳이요  
관동의 제일주라  
연하는 북해에 이어지고  
노래소리 죽서루에 가득하다.  
일월은 기둥 사이로 나오고  
봉호는 물위에 떠 있다.  
그대가 술을 없애게 하리  
시흥이 사구에 있도다.

槎川 李秉淵(사천 이병연)

죽서루 길 감명 깊은데  
봄 깊어 푸른 이끼 많이 돋았다.  
지는 꽃잎 모두 물에 떠 가고  
조각달 홀로 누대에 떠 있다.  
골짜기 모습 맑으나 습한 듯하고  
여울물소리 감도는 듯 흐른다.  
두타산 구름 저녁에 일어  
죽서루 처마 밑에 와 자고 가는구나.

恥齋 宋 瓚(치재 송 질)

왕명을 띠고 멀리 말을 달려 대관령 넘어와  
공무로 바로 죽서루에 올랐다.  
산봉우리는 서남쪽으로 뻗치고  
냇물은 오십천으로 넓혀 흐른다.  
백성들 들노루와 어울려 살고  
벼슬아치는 모래톱 갈매기와 함께 노닌다.  
이 고을 어찌 굶주림이 심할고  
이로 하여 신선들도 근심걱정이라네.

죽서루(竹西樓)

市林 洪名漢(시림 홍명한)

十年重到屬三春(십년중도속삼춘) 십년만에 다시 오니 마침 봄철인데  
 層壁回川故故親(층벽회천고고친) 층암절벽 돌아 흐르는 냇물 예와 같아 친하구나  
 沙州鷗鷺如相語(사주구로여상어) 모래섬의 갈매기와 해오라기 말 주고받는 듯하니  
 倘記仙樓舊主人(당기선루구주인) 저 분이 혹시 죽서루 옛 주인 아니던가 한다.

죽서루(竹西樓)

棣泉 吳遂采(체천 오수채)

旌旗海月暖(정기해월난) 깃발 드리우니 바다에 뜬 달 따뜻하게 느껴지고  
 深洞晚花明(심동만화명) 깊은 골짜기 늦게 핀 꽃 환하다.  
 畫檻天中影(화함천중영) 채색한 난간은 하늘 북판에 그림자 짓고  
 風灘枕上聲(풍탄침상성) 바람소리 여울물 소리 침상에 들린다.  
 汀沙黃柳動(정사황류동) 물가 모래톱에 누런 버들가지 하늘거리고  
 案牘白雲生(안독백운생) 책상 머리에는 흰 구름 일어난다.  
 此席殊奇事(차석수기사) 이 자리가 아주 기이하니  
 郡城不盡情(군성부진정) 이 고을 성곽에 드는 정 끝이 없다.

죽서루(竹西樓)

朴師海(박사해)

十年勞夢想(십년노몽상) 십년동안 꿈속에서까지 애써 생각했는데  
 白首訪名區(백수방명구) 백발되어 이 명승지를 찾아왔다.  
 水泊蒼崖去(수박창애거) 냇물은 호수되어 머물다 푸른 벼랑으로 흘러가고  
 樓將碧落浮(누장벽락부) 누각은 푸른 하늘에 떠 있는 듯하다.  
 遠遊千里客(원유천리객) 천리 먼 길 유람 온 이 나그네  
 獨立萬山秋(독립만산추) 온 산이 가을 풍경인 속에 홀로 섰다.  
 賴有同庚友(뢰유동경우) 동갑인 벗의 도움을 받아  
 相隨泛畫舟(상수범화주) 함께 아름답게 치장한 배 띄우고 놀았다.

죽서루(竹西樓)

退翁 李獻慶(퇴옹 이헌경)

座並高樓起(좌병고루기) 앉을 자리 높은 누각 함께 이룩해 주니  
 垂垂星倒看(수수성도간) 별들 차차 아래로 내려 거꾸로 보이는 듯 하구나.  
 長江隱檻底(장강은함저) 긴 강물 난간 밑을 숨어 흐르고  
 列岫讓簷端(열수양첨단) 늘어선 산봉우리 처마 끝을 비켜 주네.  
 浩劫穹岩大(호겁궁암대) 오랜 세월 지너온 활 모양의 바위가 크고  
 熱天風竹寒(열천풍죽한) 날씨 더운데도 대나무 흔들리는 소리 시원하다.  
 愁時任滄海(수시임창해) 시름은 푸른 바다에 맡겨 버리고  
 直北望長安(직북망장안) 북쪽 서울을 바라보노라.



죽서루(竹西樓)                      府使 韓聖佑(부사 한성우)  
 太白錦剛一脈連(태백금강일맥연) 태백과 금강이 일맥으로 이어져  
 爲官兩地又兼仙(위관양지우겸선) 두 곳에 벼슬하고 또 신선을 겸했네  
 去來管領誠非少(거래관령성비소) 가고 오고 다스릴 일 참으로 적지않아  
 萬二千峰五十川(만이천봉오십천) 만이천봉과 오십천이라.

죽서루(竹西樓)                      府使 尹嘯(부사 윤 소)  
 每稱東界勝(매칭동계승) 영동지방 명승지를 매양 말할적에  
 先數竹西樓(선수죽서루) 먼저 죽서루를 꼽더라.  
 嫋娜山屏繞(요나산병요) 아름다운 산은 병풍처럼 둘러있고  
 逶迤水常流(위이수상류) 굽이굽이 돌아 흐르는 물은 사철 흐른다.  
 侯仙曾說置(후선증설치) 풍류있는 고을 원이 일찍 이 누각 세웠을 텐데  
 作吏今來遊(작리금래유) 벼슬아치들 지금 유람 잘 하는구나.  
 自喜多清福(자희다청복) 여기 사또되어 좋은 복 많이 누림도 기쁜 일인데  
 還愧俸祿優(환괴봉록우) 돌이켜 봉록까지 넉넉하니 부끄럽구나.

죽서루(竹西樓)                      澹寧 洪義謨(담녕 홍의모)  
 東界皆仙窟(동계개선굴) 관동지방 모두 선경인데  
 西樓最勝遊(서루최승유) 죽서루가 가장 유람하기 좋더라.  
 不知山外海(부지산외해) 산 바깥에 바다 있음을 알지 못하고  
 常抱檻前流(상포함전류) 물은 늘 난간 앞을 안고 흐른다.  
 宦跡今三世(환적금삼세) 벼슬한 자취 지금 삼대에 이르고  
 年華正九秋(년화정구추) 시절은 바로 가을 석달이다.  
 主人留夜酌(주인류야작) 주인과 함께 밤 술잔 주고 받노라니  
 楓壁繫蓮舟(풍벽계연주) 단풍절벽에 연잎 같은 배가 매여 있구나.

죽서루(竹西樓)                      都事 趙應亭(도사 조응정)  
 飛樓千仞架蒼崖(비루천인가창애) 날아갈 듯한 누 천길 벼랑에 세워졌으니  
 天下浮雲坐可排(천하부운좌가배) 천하의 뜬 구름 앉아서 배열 하였겠노라.  
 莫道登臨供一快(막도등림공일쾌) 누에 오르면 상쾌함을 말하지 말라  
 湖山清景四時佳(호산청경사시가) 호산의 정경이 언제나 아름다울지니.

죽서루(竹西樓)                      萬休窩 任有後(만휴와 임유후)  
 千仞斷崖百尺樓(천인단애백척루) 천길 벼랑위의 백척 누각  
 山如螺髻水如油(산여라계수여유) 산은 상투같고 물은 기름같다.  
 玉簫忽落行人耳(옥소홀락행인이) 옥피리소리 문득 행인귀에 들리는데  
 回首流雲在檻頭(회수류운재함두) 돌아보니 흐르는 구름 난간 머리에 있네.

죽서루(竹西樓)

김상성

溪水深幾許(계수심기허) 오십천 깊이는 얼마쯤인가  
 西樓斜日明(서루사일명) 죽서루가 석양에 밝구나.  
 江山猶雪色(강산유설색) 강산에는 아직 흰 눈이 남았는데  
 鷗鷺已春聲(구로이춘성) 갈매기는 벌써 봄소리를 내네.  
 舟子漁歌發(주자어가발) 사공은 뱃노래를 부르나니  
 使君詩意生(사군시의생) 사또는 시정(詩情)이 이는구나.  
 東遊殊未惡(동유수미악) 관동 유람 특별히 나쁘지 않으니  
 忙裏亦閑情(망리역한정) 바쁜 가운데 또한 한가롭구나.

죽서팔경—臥水木橋(외나무 다리)

道伯 金壽寧(도백 김수녕)

搓牙古木截前灘(차아고목절전탄) 앙상한 고목 베어 앞여울에 걸쳤으니  
 步步寒心幾駭瀾(보보한심기해란) 걸음걸음 오싹한 마음, 물결에 몇 번이나 놀랐던가.  
 平地風波人不識(평지풍파인불식) 평지에도 풍파 있음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到橋猶作畏途看(도교유작외도간) 이 다리에 이르러 오히려 두려운 길이라 하는구나.

죽서팔경—隔牆呼僧(격장호승)

安軸(안축)

聳壑郡樓臨水府(용학군루임수부) 고을의 누각 골짜기에 솟아 용궁에 다가 있고  
 隔牆禪舍倚岩叢(격장선사의암총) 담 하나로 이웃한 암자는 바위 풀 숲에 기대었다.  
 愛僧眞趣無人識(애승진취무인식) 아끼는 스님 진취에 들어 사람기척도 모르고  
 十里茶烟颺竹風(십리다연양죽풍) 십리에 뻗친 차 달이는 연기 대나무 바람에 실려온다.

죽서팔경—臨流數魚(임류수어)

崔演(최연)

遊魚欲數旋成空(유어욕수선성공) 노는 고기 세려니 하늘이 빙빙 돌고  
 盡日臨流落照紅(진일임류낙조홍) 하루 종일 물가에 있으니 저녁 노을 붉구나.  
 覺得平生多料理(각득평생다요리) 평생에 해아려 다스릴 일 많음을 깨닫지마는  
 歸虛事事數魚同(귀허사사수어동) 일마다 물고기 세어보는 것같이 헛일 되고 만다.

진동루 ( 鎭東樓 )

松溪 崔翼邦(송계 최익방)

東圻乾坤壓一縷(동기건곤압일루) 동쪽 지경의 하늘과 땅 한 누각으로 제압해  
 風烟如畫鏡中浮(풍연여화경중부) 멀리 그림같이 이내끼어 거울 속에 뜬 듯하다.  
 披襟爽氣通江海(피금상기통강해) 옷깃을 해치니 상쾌한 기운 강과 바다에 통하고  
 捲箔寒精近斗牛(권박한정근두우) 발을 걸으니 차고 맑은 정신 두우에 가깝다.  
 漁帆乘閒人送酒(어범승한인송주) 고기잡이 돛단배 한가로이 뒀는데 사람들 술을 보내오고  
 湖心凝靜鷺眠洲(호심응정노면주) 호심은 고요하며 백로는 물가에서 졸고 있다.  
 將軍辛際昇平世(장군신제승평세) 진영의 장수 고생 끝에 태평한 시절 만났으니  
 醉掇兵書置案頭(취掇병서치안두) 술 취하여 책상 위에 놓였던 병서를 덮는다.

진동루 ( 鎭東樓 )

七岩 金宗鍊(칠암 김종집)

湖海東邊壓氣樓(호해동변압기루) 호수와 바다 있는 동쪽 변방을 누각 세워 제압하니  
 乾坤日夜杳然浮(건곤일야묘연부) 하늘과 땅 밤낮으로 아득하게 떠 있다.  
 門連暘谷來賓日(문연양곡래빈일) 문은 양곡에 이어져 해를 맞이해 오고  
 簷近雲霄掛斗牛(첨근운소괘두우) 처마는 하늘에 가까워 북두.견우 두 별에 걸려있다.  
 詩酒登筵明月檻(시주등연명월함) 잔치자리에서 시짓고 술 마시노라니 명월이 난간에 떴고  
 漁歌斷續夕陽洲(어가단속석양주) 뱃노래는 석양 비치는 물가에 끊어졌다 이었다 한다.  
 名區勝概無顏色(명구승개무안색) 경치 좋기로 이름난 이 곳 빛 없게 되었으니  
 撫劔將軍坐白頭(무검장군좌백두) 진영의 장수 칼 어루만지며 백발로 앉아 있다.

진동루 ( 鎭東樓 )

朴師濂(박사렴)

壯麗江海景(장려강해경) 장려한 강과 바다의 경치  
 雨後鎭東樓(우후진동루) 비 온 뒤의 진동루  
 沙禽驚喚處(사금경환처) 물가 모래톱의 새 놀라 우는 곳  
 倚檻聽新流(의함청신류) 난간에 기대 어 새 물결 소리 듣는다.

제왕운기(帝王韻紀)

李承休(이승휴)

地理紀 (지리기)

遼東別有一乾坤 斗與中朝區以分 洪濤萬頃圍三面 於北有陸連如線 中方千里是朝鮮  
 요동에 별천지 있사오니/중조와 엄연히 구분되며/큰 파도 출렁출렁 삼면을 둘러싸고/북녘에  
 대륙있어 가늘게 이은 땅./가운데서 국경천리 여기가 조선이다.....

前朝鮮紀(전조선기)

初誰開國啓風雲 釋帝之孫名檀君 並與帝高興戊辰 經虞歷夏居中宸  
 처음에 어느 누가 나라를 열었던고./석제의 손자 이름은 단군일세./요제와 같은 이 무진년에  
 나라세워 /우순을 지나 하국까지 왕위에 계셨도다.

죽서루(竹西樓)

晚慕 鄭基安 (만모 정기안)

愛向西樓去(애향서루거) 좋아하는 마음이 쏠려 죽서루 향해 가노라니  
 樓陰敷坡落(누음부파태) 누각의 그늘이 망가진 이끼에 깔려 있다.  
 星河同在戶(성하동재호) 은하수는 방문 가까이 다가왔고  
 松栝半登臺(송괄반등대) 소나무와 전나무는 누대의 반쯤 자랐다.  
 洞隔滄溟邃(동격창명수) 골짜기는 푸른 바다와 격하여 깊숙하고  
 江連太白廻(강련태백회) 강은 태백산맥에 연해 돌아 흐른다.  
 茫茫悉直國(망망실직국) 아득하여라 실직국이여  
 長嘯見雲來(장소견운래) 길게 읊조리니 구름 몰려 오누나.

죽서루(竹西樓)

舊國千年尚有樓(구국천년상유루)  
我來長嘯竹陰秋(아래장소죽음추)  
孤城老樹仍寒色(고성노수잉한색)  
百峽奔湍始穩流(백협분단시온류)  
幾惱詩篇驚俗眼(기뇌시편경속안)  
難憑簫鼓慰民愁(난빙소고위민수)  
仙遊一過無人識(선유일과무인식)  
沙渚他時證白鷗(사저타시증백구)

俛宇 郭鍾錫(면우 곽종석)

옛나라 천년세월 누각되어 있는데  
글 길게 읊으며 대나무 그늘지는 가을에 나 여기 왔네.  
외로운 성 오래된 나무 차가운 모습 더하고  
많은 골짜기 급한 여울물 여기서는 천천히 흐르네.  
고심 끝에 쓴 시들 속된 안목으로는 놀랍고  
통소불고 북치는 소리로 백성 시름 달래기는 어렵겠도다.  
신선같이 유람함을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다른 날 백사장의 갈매기는 이를 증명해 주리.

죽서루(竹西樓)

關東第一竹西樓(관동제일죽서루)  
樓下溶溶璧玉流(누하용용벽옥류)  
山靜鳥啼叢桂樹(산정조제총계수)  
月明人語木蘭舟(월명인어목란주)  
百年泉石如相待(백년천석여상대)  
千古文章不盡遊(천고문장부진유)  
采采瓊華生遠思(채채경화생원사)  
白雲歸駕故淹留(백운귀가고염류)

鍾山 沈英慶(종산 심영경)

관동의 제일루는 죽서루로라.  
누 아래 질편한 물, 맑고 푸르게 흐른다.  
산은 고요하며 새들 계수나무 숲에서 우짖고  
달은 밝은데 목란 배에선 사람소리 들린다.  
천석은 고금에 변함이 없고  
천고의 문장들은 끝없이 찾아드네.  
아득한 저 멀리 선경을 생각하며  
흰구름 타고 가서 짐짓 머물러

죽서루(竹西樓)

我欲登茲住十春(아욕등자주십춘)  
忽焉回首憶情親(홀연회수억정친)  
清詞在壁如相見(청사재벽여상견)  
已是仙樓作記人(이시선루작기인)

都事 趙應亭(도사 조응정)

죽서루 올라보려 십년을 별렀는데  
문득 고개 돌려보니 정겹고 친밀하다.  
아름다운 글들 벽에 걸려 있어 얼굴 마주하는 듯 하니  
이 곧 신선같은 누각에 글쓴 분들일세.

죽서루(竹西樓)

人間大觀盡滄溟(이간대관진창명)  
目極扶桑萬里靑(목극부상만리청)  
却恐心神徒汗漫(각공심신도한만)  
儵然劒作一溪亭(소염검작일계정)

淵泉 洪爽周(연천 홍석주)

사람이 넓게 보려면 넓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는 것인데  
멀리 부상을 바라보니 만리토록 푸르구나.  
넓은 바다 바라보다가 마음 풀어질까 두려워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시냇가에 정자 하나 짓기 바랄 뿐이다.

臥水木橋(와수목교—죽서팔경)

斫斷長條跨一灘(작단장조과일탄)  
淺霜飛雪帶驚瀾(천상비설대경란)  
須曳步步臨深意(수예보보임심의)  
移向功名宦路看(이향공명환로간)

辛葢(신천)

긴 통나무 베어 한 여울물에 걸쳤는데  
얇은 서리 날리는 눈발, 사나운 물결 띠고 있다.  
한발자국 한발자국 조금씩 끌며 물깊은 곳 왔을 때의 이 마음  
공명과 벼슬길도 이 때와 같으리.